



스몰캡 Analyst 오현진 ohj2956@kiwoom.com

## 엠펙플러스 (259630)

### 역대 최대 분기 실적, 성장 본격화 속 저평가 매력 부각

#### ◎ 이차전지 조립공정 전문 장비 업체, 성장 본격화 주목

>> 당사는 이차전지 조립공정 전문 장비 업체로 노칭, 스테킹, 탭 웰딩, 패키징 등 조립공정 전체를 Turn-key로 제작이 가능하다. 2008년 조립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성공 및 2010년 해외 업체 향 납품 이력 등 오랜 업력 기반의 높은 기술력과 안정적인 생산성이 동사의 경쟁력으로, 최근 이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 확대 기조와 함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국내 고객사향 중심의 높은 실적 의존도를 보였으나, 올해 엔비전 AESC 및 O.N.E(Our Next Energy)향 등 해외 고객사 수주 공시를 통해 고객사 다변화도 진행했다.

#### ◎ 2Q22 영업이익 131억원,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전망

>> 당사는 2분기 매출액 1,495억원(YoY 5,175%), 영업이익 131억원(YoY 흑전)을 기록했다. 동사의 22년 연간 매출액이 1,166억원(영업적자 99억원),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27억원(영업이익 7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분기 실적이다. 호실적의 원인은 22년 수주의 매출 반영이다. 동사 연간 신규 수주 금액은 20년 870억원 → 21년 1,895억원 → 22년 2,951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2년 상반기 대규모 수주 일부 및 이연된 매출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 동사의 23년 실적은 매출액 3,194억원(YoY 174%), 영업이익 268억원(YoY 흑전)을 전망한다. 늘어난 수주잔고의 매출 반영이 본격화되고 있음에 따라 하반기도 견조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내년에도 높은 성장 가시성, 저평가 매력 부각

>> 1H23 호실적으로 인한 높은 매출 인식에도 반기보고서 제출일 기준 동사의 수주 잔고는 4,341억원이다. 견조한 신규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주의 대부분이 해외 고객사향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익성 추구도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공급 계약을 맺은 해외 고객사들이 공격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앞두고 있고, 해외 배터리 고객사는 장비를 Turn-key로 납품하는 것을 선호해 동사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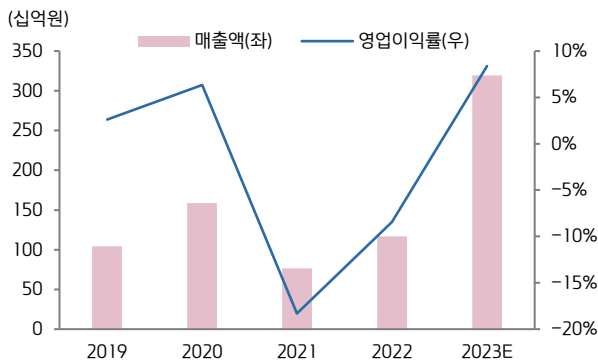
>> 동사의 주가는 23년 기준 PER 8배 수준으로, 과거 실적 부진과 국내 고객사향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경쟁 업체 대비 현저한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다. 우려와 달리 해외 고객사를 통한 견조한 신규 수주와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통해 동사의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과 성장성이 주목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엠플러스 연간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E
매출액		104.3	158.5	76.5	116.6	319.4
	YoY(%)	33.6	51.9	-51.8	52.5	173.9
영업이익		2.7	10.0	-14.0	-9.9	26.8
	YoY(%)	41.9	266.9	적전	적지	흑전
영업이익률(%)		2.6	6.3	-18.3	-8.5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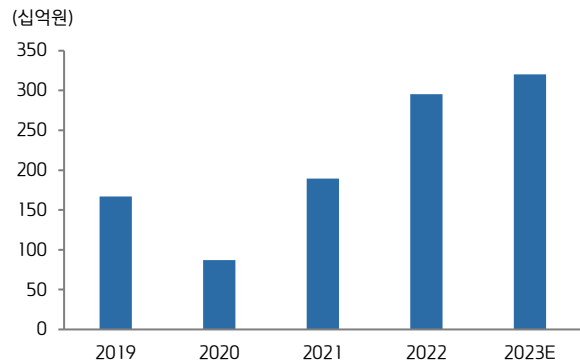
자료: 엠플러스, 키움증권

엠플러스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엠플러스, 키움증권

엠플러스 연간 신규 수주 금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엠플러스,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14일 현재 상기 언급된 중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